

광은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호프데이'

광주 무등산서 '휴먼 산행' ... 세계 최초 16좌 완등 엄홍길 대장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4일 밤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동구청장 장애인체육대회 선수 격려



유대영 동구청장은 최근 21일부터 5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동구 참가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랑의 헌혈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조희하) 패밀리사 임직원과 가족 750여명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광양제철소내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헌혈행사를 가졌다. (광양제철소 제공)

노인에 건강 지압용 '귀족호도' 기증

장흥 김재원씨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귀족호도 박물관'을 운영 중인 김재원(51) 관장이 움직이지 불편한 노인 등에게 건강 지압용 '귀족호도'(일명 호도)를 기증하는 이색 봉사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귀족호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흥군에만 수령 300년이 넘는 나무 8그루가 협조하고 있어 여기에서 나온 호도가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라갔다.

김 관장은 지난 1일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30벌의 귀족호도를 갖고 찾아가 불우 노인들에게 전달하고 위로하는 등 그동안 경로당과 사회복지재단, 노인 위안잔치 등에 모두 300여 쌍의 귀족호도(시가 1천여만원)를 제공하는 봉사를 벌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국민들에게 희망 심는 제2의 원정길 나설 것”

'휴먼재단' 설립 히말라야 어린이 배움터 건립·의료 지원 앞장

“그동안 수많은 산을 오르며 받은 해아릴 수 없는 은혜를 되갚는 것을 제2의 인생목표로 삼고 '자연사랑, 인간사랑, 꿈과 희망, 불굴의 도전 정신'을 전파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알통강(8,505m)과 로체 샤프(8,400m)를 추가로 올라 '세계 최초 8,000m 16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탱크' 엄홍길(49) 대장이 5일 무등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휴먼 산행'을 가졌다. 광주일보에 이날 중심사~바람재~무당골~중심사 구간에서 3시간여동안 진행된 산행에 동행해 엄 대장을 인터뷰했다.

엄 대장은 “많은 산들을 오르며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는 제2의 원정길 나설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히말라야 오지의 교육, 의료, 보건환경 개선에 착수

했다. 사진집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 नेपाल 쿄무히말라야의 해발 3,800m에 위치한 광보체 마을에 어린이 배움터(학교)를 짓는 것이 첫 사업이다. 지난 5월 가공식과 함께 의료지원 봉사 활동을 펴기도 했다.

히말라야 등반 과정에서 느낀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작정이다.

엄 대장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히말라야의 장엄하고 근사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급속한 온난화로 히말라야 고봉들의 눈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산간 마을이나 도로가 유실돼 인적·물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말라야 16좌를 모두 오른 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고산 등반을 도와준 세르파들이

었다. 그들의 가족은 물론 산을 함께 오르다 유명을 달리한 산악인 동료 가족들을 돕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나아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산을 경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등산을 오른 게 이번이 다섯번째라는 엄 대장은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20~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높이 1천m 이상의 산 있는 곳은 오직 광주 뿐”이라며 “이런 점에서 광주시민들은 복받은 주민들”이라며 미소 지었다.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히말라야의 주민들을 돕고 자연을 보호하는 민간외교관이자 환경운동가로 새롭게 출발한 그는 현재 상명대 석좌교수와 (재)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등을 맡아 강연과 소외계층돕기 산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산행은 그가 기술고문 및 홍보상무이사로 있는 (주)에텔바이스 아웃도어 밀레(대표 한철호)가 주최했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미스터 초밥왕' 배정철씨 장성 삼계고·순천 효천고에 장학금

10년 넘게 이어진 기부 선행으로 잘 알려진 '미스터 초밥왕' 배정철(47)씨가 고향 학교에 1천만원을 내놓았다.

전남 장성 삼계고등학교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식집 '이도'를 운영하는 배씨가 최근 1천만원을 학교 계좌로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배 사장이 학교로 전화를 걸어 외 교장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앞뒤 설명도 없이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올해 40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는 지금껏 발전기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 부랴부랴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등 작은 소동(?)을 빚었다.

이 학교 여승오 교장은 “시골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긴급 지원회의를 열어 기부금 용도를 논의했다”며 “이 지역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고맙게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배씨의 정성에 전교생 80여명의 점심과 저녁 무료급식으로 화답하고 약간의 남은 기금은 장학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 5일 순천 효천고를 방문, 2010년도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장성이 고향인 배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상경, 일식집 종업원부터 시작해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미스터 초밥왕으로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서울대병원에만 8여여원을 기부하는 등 10년 넘게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방송인 장영란 3살 연하 한의사와 화혼

가수 겸 방송인 장영란(30)이 세상 연하의 한의사 한창 씨와 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화혼을 맺었다.

장영란과 한씨는 SBS TV '진실게임'에서 게스트와 일반인 출연자로 만나 1년간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이날 결혼식에서 주례는 한씨가 근무하는 자생한방병원 메디컬그룹 신준식 이사장, 사회는 개그맨 박수홍, 측가는 채연과 유리상자가 맡았다. 또 신부의 동료인 연기자 황효은, 최윤정과 게임 자기 신주현,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섰다. 신혼여행은 인도네시아 발



리로 떠난다. VJ로 연예계에 데뷔한 장영란은 드라마 '우리 집에 왜 왔니', '인순이는 예쁘다', 영화 '동감내기' 과외하기 레슨 2'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영역을 넓혔고, 최근에는 '라니'라는 이름으로 가수수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故 장진영 남편 “결혼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

지난 1일 위암으로 숨진 고(故) 장진영의 남편 권영근(43) 씨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장진영과 결혼식을 올린 그는 “진영이의 병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면사포를 씌워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진영이 결혼식 때 5kg 정도 빠져 야윈 상태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장진영을 '42세에 만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

김씨는 지난달 28일 혼인신고를 한 것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내 호적에 올려 가는 길 외의게 없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이에게 내 의견을 말하니 내게 집이 될까 봐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면서 ‘나 아니면 그때 하자’며 망설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면 단순한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진영이랑 남편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타블로 - 강혜정 다음달 결혼

그들 예뻐하이의 타블로(29·사진 왼쪽)와 배우 강혜정(27)이 10월 결혼하며 이미 2세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타블로는 소속사를 통해 “첫눈에 반해 제 운명임을 알게 된 혜정씨와 올가을,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중순 우리는 엄마아빠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두 사람은 내년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결혼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타블로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긴데



대해 “올해 초 동료들과 독립 회사를 만든 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힘들 때마다 혜정씨가 버팀목이 되고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김태규씨 장남 진(화순 전남대병원)군 양희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 20분 메리엇 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7일(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송원고 제11회 동창회(회장 함명성) 월례회=11일(금) 오후 7시 낙지해마당. 062-381-5559.

향우회

▲경주김씨 재광 이사(회장 김두석) 월례회의=7일(월) 오후 6시 동구 금남로 4가 백운산 회관. 062-222-4569.

종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7일(월) 오후 6시 30분 화랑궁식당. 018-616-5755.

▲한국범씨회 대종연합회(회장 최기후) 9월 정기월례회=11일(금)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오후 6시 30분. 062-236-3220, 017-603-643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09 자원봉사 정책토론회=긴급지원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방안 모색, 10일(목)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연=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록환자. 두암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

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모집

▲전통주 과일주(와인) 제조부 수강생 모집=9일(수)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매주 수요일)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

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 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뚝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자격증반 모집=근육맞사지, 수기 요법으로 소생술(카이로프랙틱) 교육기간 9월 10일~12월 17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1일까지 평생교육학과에서 접수. 062-670-2167, 010-6426-5905.

▲풋볼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부음

▲주의준씨 별세 석노·학노·민

노·연자·연순·연숙씨 부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방공례씨 별세 안시옥·시종·시구·시오·동남·이남·송남씨 모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해승씨 별세 동운·형아·형미·성희씨 부친상=발인 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박복례씨 별세 김순자씨 모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박양순씨 별세 유성열·정주·창진·송암·정단·정화·정옥씨 모친상=발인 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

호. 062-515-4488.

▲김중웅씨 별세 권석·종석·성희씨 부친상=발인 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정순녀씨 별세 이성두·일형·순형·은형·숙인·우인씨 모친상=발인 7일(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임춘택씨 별세 응채·승채·원채씨 부친상=발인 7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재철(전 재경 화순 향우회) 우사 김규식 연구회장)씨 별세=발인 7일(월) 서울 종로구 흥지동 40번지. 장지: 화순군 화순읍 교리 선

영.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선 국민생활서비스 프리드 현대종합상조. 가입문의 1566-4499